

대구주보

부활 제2주일 곧, 하느님의 자비 주일
2020. 04. 19. (가해) 제2210호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요한 20,29)



『의심하는 토마스』, 지오바니 세로 단, 1620년대, 폴란드 바르샤바 국립박물관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토마스는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 그리고 그는 믿지 않았다



용계본당 주임 | 김태한 바오로 신부

부활하신 예수님과 토마스 이야기는, 우리처럼 초대교회 이후 예수님을 직접 뵈지 못하는 ‘다음 세대’를 위한 함의를 담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토마스 사도와 오늘 사건을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약한 토마스의 신앙을 꾸짖고 실제로 당신께서 부활하셨음을 스스로 검증하는 자리로 얘기하지만, 이 자리는 그분에 대한 연약한 믿음을 간직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자신의 신앙을 어떻게 영생의 차원에서 완성시켜 나가야 할지에 관한 과제를 떠안은 자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야 하며 또 지켜야 할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뵈는 자리입니다. 또한 이 자리는 우리 신앙의 시작의 자리이고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구원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언제나 어떤 자리에 담겨있고, 또 어떤 자리로 옮겨지며, 또한 대부분 우리의 원의나 우리 행위의 결과로 인해 자리 잡게 되어있습니다. 사실, 내가 있는 이 자리는, 혹 지금껏 내가 지켜온 자리는 나의 죄로 인한 외로움의 자리이고 절망의 자리입니다. 진정으로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닐 때가 많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헤매는 방황의 자리일 때가 많았습니다. 또한 한결같이 지키고 있어야 할 그 자리였지만, 토마스처럼 지키지 못하고 결국 불신의 자리를 고집하고 사는 삶이 될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껏 내가 갈망하고 내가 고집한 삶의 자리는, 돌아보면 ... 그분이 원하신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참된 행복을 위해 우리가 찾고 살아야 할 자리는 ‘기도의 자리’이고 또한 ‘선행의 자리’이며, 그분께서 가셨던 ‘소명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보다 방종과 탐욕의 자리에서 살았으며, 그분의 뜻을 묻고 자신을 비우는 자리보다는 나 자신의 어리석은 의지가 관철되어야만 하는 고집과 교만의 자리였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내가 있는 이 자리는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죄스러운 의심의 자리인 것입니다.

저마다 세상살이를 하면서 지키고 살아가야 할 자리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처럼 모래성 같은 허무의 자리를 구할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영생으로 이어지는 참 행복의 자리를 찾고 그 자리를 지키고 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삶 같이, “버려진 모퉁이 돌”처럼 세상의 눈에는 실패한 삶 같이 보이나, 영생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그 십자가의 자리, 고난의 자리를 함께한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뵈는 영광스러운 자리에도 서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 3:1**

생태적 거리와 사회적 거리두기

봉곡성당 주임·산림치유지도사 | 임성호 베네딕도 신부

아주 오래되고 소중한 친구들을 만나러 가자. 어차피 요즘 상황에서 달리 이웃을 만나기에도 서로 부담스럽다. 홀로 낙동강을 매일 찾는다. 나선 들길에서 어릴 적 동네 어귀에서 보았던 솔새도 만나고 ‘나는 세다’라는 별명을 지닌 가는잎그늘사초도 그곳에 있다. 참억새며 약쭉, 냉이, 지칭개, 붉은빛으로 달밤을 꿈꾸며 바짝 엮드린 달맞이꽃 등등 파스한 햇볕 아래에서 살며시 자라고 있다. 문득 길 한 가운데 버티어 서 있는 고라니는 들을 지키고 있다. 어느 순간 들려오는 새의 고음 놀이는 뭉쳐진 가슴을 활짝 펴게 만들어 준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니 발길이 들길로 산길로 이어지며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이르기까지 청량감이 들어 참 좋다.

나무들이 그림다. 속리산의 소나무도, 정선의 1300살 드신 주목 세 어르신도, 강화도의 탕자나무도, 무주의 반송도, 울릉도의 너도밤나무도, 제주도의 구상나무도 그림다. 벌지 동네의 살구나무도 추억하고 싶다. 앞산의 참나무도 그림다. 두류산 공원의 아카시아도 그림다. 교구청과 신학교의 우뚝한 메타세쿼이아도 그림다.

황무지와 사막에서 버드나무가 자라기 시작하면 그곳에는 온갖 생명들이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오아시스가 생기고 마침내 사람도 머문다. 만약 나무들이 우리 가까이 살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있을까? 대프리카에서 복사열을 식히는 일을 하도록 나무에게 부탁하며 속절없이 맡겼다. 참으로 밤낮 간단없이 그 일을 시켰지만 나무는 별말 없이 묵묵히 잘 한다.

이제 심리적 스트레스가 켜켜이 쌓인 도심을 벗어나 음이온과 피톤치드가 흘러넘치는 산과 들로 가보자. 휘발성유기화합물(테르펜), 에센셜오일, 정유, 타감작용이라는 말은 피톤치드의 다른 이름들이다. 산골 시냇가의 시원한 물소리와 음이온은 산성화된 몸을 중화시켜 주고, 피톤치드는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알려진 코르티솔을 팍 낮추어 준다. 나무와 산속 개울에 가면, 온갖 자연 친구들이 합심하여 향상성과 약해진 면역력을 향상시켜 준다. 이는 나무를 만나러 나선 이들에게 거저 주어지는 하느님의 선물이다. 온갖 향기를 코로 가슴 깊숙이 폐포를 풍선처럼 부풀리며 들이키고, 아름다운 백색 소리는 귀로 들으며 곡조를 헤아려보고, 첩첩 산은 눈으로 그 능선의 곡을 따라가며 직선화된 시야를 보이는 그대로의 선형을 둥글게 혹은 그 복잡한 비선형의 프랙털 구조를 가늠해 보고, 상큼한 물맛은 두손을 빌려 입으로 가져가며 속 청소를 시원하게 해보고, 소나무의 벌크는 등을 맞대거나 혹은 끌어안고 가슴으로 생동하는 생명의 기운을 몸소 알아차려 보자.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태적 거리, 그 양자의 절대적인 차이만큼 사회적 건강, 정신적 건강, 몸의 건강, 영적 건강 균형이 깨어져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느님께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보시기에 좋은 온갖 좋은 생태를 통해 다시금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소홀함과 낭비함이 없이 주시고 계심을 새삼 고백하며 묵상해 본다. 그림고 반가운 생태 친구야, 오늘도 그곳에 늘 있고 괜찮은 거지? **꺾은 나무**

일상의 소중함

교구 병원사목부 차장 | 정진섭 도미니코 신부

+ 찬미 예수님!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다들 코로나19로 인해 ‘위기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 분위기도 경제도 사람들의 마음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에게 하느님의 위로와 용기가 가득하시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적어 봅니다.

저는 오늘 이 글을 적으면서 ‘왜 이 상황이 이토록 우리를 힘들게 만들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어가고 세계적으로 점점 확산되어 가는 현상 때문일까요? 분명 이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현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일상’을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평소 아무렇지 않게 대해 왔고 맞이했던 ‘일상’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제가 만나고 있는 환자분들은 ‘일상적인 생활’을 하던 한 개인에게 닥쳐온 영혼과 육체의 조화가 깨어져 버린 상태에서 오는 영혼의 파괴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자신이 생활하던 공간에서 생활할 수 없고 자신이 즐겨 입던 옷을 입을 수도, 자신이 좋아하던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도 없습니다. 사람을 만나기도 싫습니다. 하느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좋아하던 것, 즐겨 하던 것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한, 그래서 ‘위기에 처한 영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에게 자신이 살아왔던 일상은 너무나도 소중한 순간입니다.

제가 만난 말기 암 환자분들 중에 한 분은 제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신부님, 집에 딱 하루만 있다가 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집에 가서 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세요?” 환자분은 “그냥 가족들하고 식사 한 번 하고 싶어요. 이야기 나누면서요.” 이 환자에게 가족과 함께 생활하던 공간, 그들과 함께했던 식사와 대화는 너무나 소중한 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아마 여러분들도 일상의 소중함을 많이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이 생활하던 공간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맞이하게 될 그 하루의 일상은 다시 오지 않을 시간이며 우리에게 빛나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필름**





김사건 안드레아 (1794~1839년)

충청도 서산의 중인 집안에서 태어난 김사건(金思健) 안드레아는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교리를 배웠다. 1815년에 유배형을 받은 김창귀 타대오는 그의 아버지였고, 그 해 강원도 원주에서 옥사한 김강이 시몬은 그의 큰아버지였다.

본래 안드레아의 집안은 부유하였으나, 부모가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인 후 재산을 버리고 이곳저곳으로 이주해 다닌 탓에 가난하게 되었다. 그의 가족이 피신해 다닌 곳은 전라도 고산, 경상도 진보, 강원도 울진 등지였다. 그러다가 안드레아는 1815년의 을해박해 때 아버지와 함께 체포되었으나, 마음이 약해져 석방되고 말았다. 이후 그는 ‘참 좋은 기회를 놓쳤다’고 하면서 가끔 당시의 일을 후회하곤 하였다.

아버지가 유배를 간 뒤 안드레아는 경상도로 이주하였다. 이곳에서 그는 기도와 전교, 성경 읽기에 많은 시간을 바치면서 교리를 실천하는 데 열중하였다. 또 신자 가정을 찾아 교회 서적과 성물을 전해 주거나 교리를 가르쳐 주었고, 죽을 고비에 있는 비신자 자녀들에게는 대세를 주었다. 그러면서 안드레아는 다시 순교할 기회가 오기를 기다렸다.

1827년 정해박해가 일어나자, 안드레아는 체포될 것으로 짐작하고 천주의 섭리를 잘 따르기 위해 많은 기도를 드렸다. 실제로 얼마 안 되어 포졸들이 그를 체포하러 왔고, 그는 이내 상주로 끌려가 문초를 받게 되었다. 이때 그는 ‘교우들을 밀고하라’는 관장의 명을 거부하고, 오히려 천주교의 주요 교리

와 십계를 상세히 설명하였다. 그러자 관장은 화가 나서 혹독한 형벌을 가하도록 하였다. 그는 다리뼈가 허영게 드러났지만, 마음이 약해지기는커녕 기쁜 마음으로 이를 참아냈다.

며칠 후 김사건 안드레아는 경상도의 수부인 대구로 압송되어 다시 혹독한 형벌을 받아야만 하였다. 그러나 그는 결코 굴복하지 않았다. 그 후 그는 전주로 이송되어 포졸들이 교우들로부터 빼앗은 성물에 대해 답변을 한 다음 다시 대구로 끌려오게 되었다.

대구 옥에는 형벌을 이겨낸 많은 교우들이 안드레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이들과 함께 이후 12년 동안을 고통 속에서 살아야만 하였다. 그러다가 1839년 기해박해가 일어난 뒤 다시 한 번 배교 여부를 묻는 문초가 있었는데, 이때 임금에게 올려진 사형 선고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었다.

“김사건은 천주를 공경하여 받들었고, ‘그 묘미를 깊이 깨달아 비록 죽을지라도 여한이 없다’고 하였으니, 법에 따라 처단하려고 합니다.”

1839년 5월 26일(음력 4월 14일), 안드레아는 마침내 동료들과 함께 형장으로 끌려나가 참수형을 받고 순교하였으니, 당시 그의 나이는 45세였다. 그때 이들을 바라보는 죄수와 옥졸들은 모두 슬픔을 감추지 못하였는데, 이는 오랫동안 그들이 보여준 모범 때문이었다. 이후 포졸들은 그의 시신을 수습한 뒤 예를 다하여 장사를 지내 주었으며, 신자들은 오랫동안 그를 특별히 공경하였다.

출처 :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홈페이지



이수승(베드로) 신부님 선종

대구대교구 소속 이수승(베드로, 향년 47세) 신부님께서 지난 4월 12일 (일)에 선종하셨습니다. 4월 14일(화)에 장례미사를 거행하였으며 신부님의 묘소는 군위 성직자묘역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신부님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를 빕니다.

오늘의 전례

제 1 독 서	사도 2,42-47	제 2 독 서	1베드 1,3-9	복 음	요한 20,19-31
화 답 송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또는 ◎ 알렐루야.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 알렐루야.				
영 성 체 송	네 손을 넣어 못 자국을 확인해 보아라.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알렐루야.				

이번 주 주일미사는
교구장 조환길 타대오 대주교님
집전으로 봉헌됩니다.

시청 천주교대구대교구 유튜브,
가톨릭신문 유튜브
라디오 대구가톨릭평화방송

부활 제2주일 주일미사

대구대교구장
조환길 대주교 집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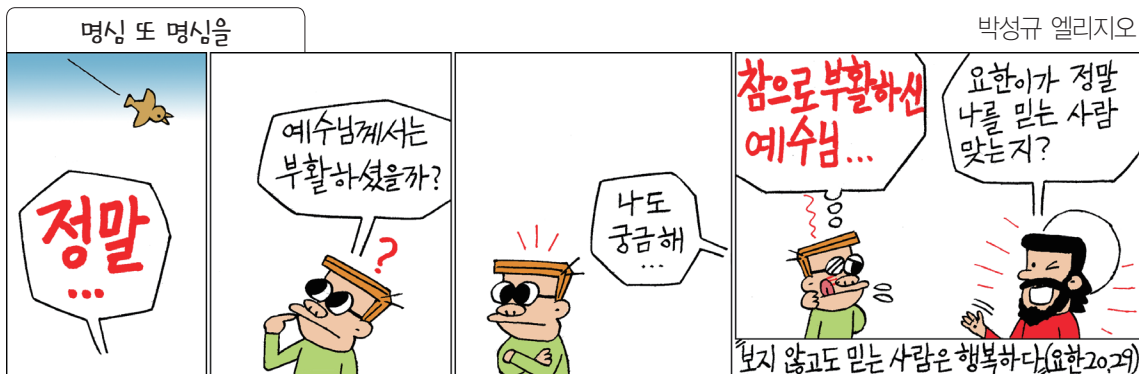
신자와 함께하는 미사가 중지된 지금, 미사를 방송으로 함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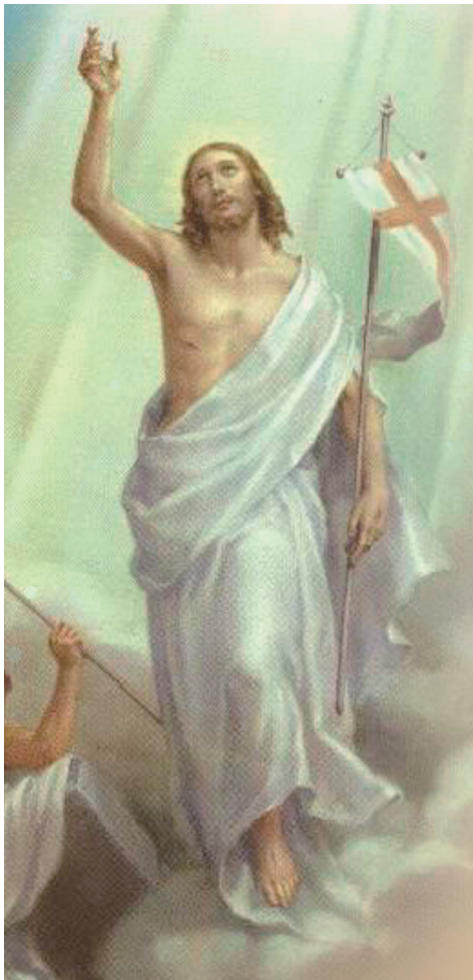
cpbc 가톨릭평화방송 매일미사 방송시간

TV 월~토 06:00, 12:00, 18:00, 21:20 | 주일 06:00, 09:00, 12:00, 18:00, 21:00

대구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매일 05:00, 18:05(대구 FM 93.1MHz, 포항 FM 96.9MHz, 김천 FM 100.5MHz, 안동 FM 100.7MHz)

매일 05:00 이후 cpbc 홈페이지 · 모바일 앱 ·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보실 수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코로나를 극복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부활의 축복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우리의 희망임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배려와 나눔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어주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천주교대구대교구장 조환길 타대오 대주교와 사제단 일동

가장 좋은 치료제는 '사랑'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성금 후원계좌 : 대구은행 041-10-003277 (재)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

코로나19 피해 성금 접수현황은 교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GB 포장이사서비스

꼼꼼히 딱 하루 한집만!!
내 집처럼

무료전화 **080-053-1000**

김진수(마르티노) 010-7484-3355

공정직영도매(동고령IC)

삼우싱크

이용해(스테파노) 박현미(마리아)

전시장 : 대구 용산점, 칠곡 구암점

싱크,불박이,신발장,각종수납장 인테리어 및 주택수리

010-2866-0277 | 010-3336-9567

원룸,투룸 용달이사

한약기(바오로)
010-3514-3855

수성구 761-2484 서 구 566-2484
달서구 637-2484 북 구 313-2484

잘보는 안과
DAEGU PREMIER EYE CENTER

문홍재(요한) · 이정호 · 구원모
이태운(미카엘) · 김진선 · 이혜미

효성병원 맞은편 1~4층
잘보는안과 빌딩

☎ 053 766 4455

칠곡속내과
CHIL-GOK SOK INTERNAL MEDICINE

위·대장내시경, 용종절제술
만성질환클리닉, 성인예방접종

원장 이정수(요한) T. (053)327-0300

대구 3호선 뚝방역 4번 출구

우보한의원

백반증 | 아토피 | 두드러기 | 건선
지루성피부염 | 기타피부질환 | 비염

대구시 중구 명덕로 193 코스모스빌딩 7층
원장 박재영(루카) 실장 김소영(유스티나)

TEL. (053)427-8080

2대 반세기, 건강한 관절, 척추

백두병원
SINCE 1975

어깨 무릎 발목 관절경수술

정형외과 전문의 백억두 아오스딩, 배상근 베드로
유천치안센터 옆 T. 425-5919
대구시 달서구 월배로 18(진천동)

대학병원급 3.0T MRI, CT
공단검진 지정병원 / 위,대장 내시경

www.piumclinic.co.kr

이애현 피임산부인과
원장 이애현(크리스티나)

부인과 검사, 갱년기 클리닉
레이저 여성 성형, 비만클리닉
보험공단 자궁경부암검진, 요실금클리닉

상인역 2번출구 하나은행건물 7층 **TEL. 053.421.7585**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이종흥(크리산토) 몬시뇰
2015년 4월 19일
- 송덕망(스테파노) 신부
1920년 4월 22일
- 신현옥(치릴로) 신부
1988년 4월 22일

성소 | 피정

대구가르멜여자수도원 성소 상담

대상: 20~30대 성소에 관심있는 분
상담: 필요시 언제나 방문 가능
문의: (010)3375-4408

carmeldg@hanmail.net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성소 모임

일시: 4.26(일) 9:30
장소: 서울 돈암동 본부
대상: 만 19세~만 35세
문의: (010)9937-0901

예수고난회 성소 모임

일시: 5.2(토) 20:00~3(일) 11:00
장소: 서울 돈암동 수도원
문의: (010)6804-4904

5월 한티 피정

바람과 영혼의 노래(음악 피정): 5.2~3
지도: 신상옥(생활성가가수)
나보다 더(영성 피정): 5.4(월) 10:00~16:00

문의: (054)975-5151
<http://www.hanti.or.kr>

평화계곡피정의집 첫영성체 가족 피정

1일: 5.16, 17 / 1박 2일: 5.30~31
대상: 첫영성체 대상 가족
문의: (010)3422-7587

제주면형의집 피정

수도회 수사와 제주 성자·평화·역사
순례, 미사, 나눔, 올레길·오름트레킹
일시: 4.28~30 / 5.2~5(추자도)
5.9~12(추자도) / 5.15~17 / 5.25~27
신청: (02)773-1463 / (064)756-6009

행사 | 모임

4월 예비신학생 모임

일시: 4.26(일) 14:00
장소: 교구청 별관 1층 대화합실
대상: 고3~대학·일반(입시반)
※ 중1~고2 예비신학생 모임은
4월에 없습니다.

교육 | 모집

대구가톨릭평화방송 신앙특강

방송시간: 금, 토 14:00~15:00
강사: 4월_이정옥(안드레아) 신부
5월_이성웅(세례자요한) 신부
문의: 대구가톨릭평화방송, 251-2630

앞산밀북카페 개강 무기한 연기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 이번 학기 북카페 강의
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문의: 622-1900

생활성가밴드 DEUS 멤버 모집

부문: 키보드
문의: (010)9211-8966

2020년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후기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5.4(월)~15(금) 17:00
입학전형: 6.1(월) 14:00(석사과정)
전공: 생명윤리학(임상연구윤리학),
생명문화학 / 문의: (02)2258-7076

미국가톨릭사립학교 입학생 모집

기간: 단기(1년), 장기(1년 이상)
대상: 초5~고1
주최: 그리스도의례지오수도회 운영
미국 학교법인 / 문의: (02)2258-8983
<http://www.oakinternational.co.kr>

채용 | 안내

SOS프란치스카의집 영양사 채용

자격: 영양사 자격증 소지자
근무: 주말·공휴일 포함 주 5일 근무
문의: 사무행정팀, 986-2077~8
<http://www.sos-silver.or.kr>

2020년 대구주보 광고 추가 접수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교적증명서,
본당 신부님 추천서
문의: 교구 문화홍보국, 250-3048~9

그랜드 통증의학과
(비수술적인 통증 치료 전문)

허리, 어깨, 무릎 관절통, 스포츠 통증
프롤로 재생 주사, 도수 치료

통증의학전문-원장 정 순 우 (요셉)
범어네거리 두산위브더제니스상가 3층
☎ 755-5572 (지하철 범어역 8번 출구)

박의현 구심내과

심장병,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초음파
지하철2호선 경대병원역 3번출구
원장 박 의 현(안드레아)
☎(053)252-1785

WIDEX 와이드스 보청기 달서점

前) 대구북옥보청기 14년 자점장
덴마크 및 세계 유명 브랜드 취급
보조금 131만원, 즉석 A/S, 출장상담
류(다니엘) 053)554-0044
2호선 감삼역(서남시장) 2번 출구 앞

(주)한투어 성지순례전문

이스라엘, 성모발현지, 프랑스 순례
터키/그리스 성지순례 모객중

☎ 053-427-7090
안상덕 요한, 김 마리아막달레나
<http://www.hantourcatholic.com>

족부전문정형외과의원
(발·발목·스포츠 질환)

만족정형외과

원장 최재혁(요한)
☎ 255-8119
3호선 범물역 2번출구 (농협방향 20m)

난창·이명은
밝은귀보청기 & 청각재활센터

대학병원급 최신 검사 및 피팅 장비 보유

대구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 석사/청능사
최준우 (미카엘)
상담 및 청력검사 문의 053)257-8588

노인성 질환 전문요양
매일미사 봉헌, 영성치료

(재)대구구천주교유지재단
성요셉요양병원

병원장 김 명 섭(그레고리오) 신부
TEL 053)615-4871

수맥홍집대

주보 지참 교우 우대

거실 황토소파

평화방송신문 광고 중

☎1588-5335